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자 신용 이용 분석: 고용불안정성 요인의 효과를 중심으로

Consumer's Use of Credit as a Financing Medium : The Impact of Employment Instability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BK 21 연구원 백은영

School of Economics, Sungkyunkwan University
BK21 Researcher : Baek, Eunyoung

〈 목 차 〉

I. 서론
II. 문헌고찰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employment instability on consumer's use of credit as a financing mediu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examine the effect of employment related factors on consumers' use of credit; 2) to compare the results between the two different economic situations. A conceptual framework was developed based on the permanent income hypothesis, family stress theory, and the previous empirical studies. Using data on working households in the 1992 and 1998 Survey of Consumer Finances (SCF), double-hurdle analyses were conducted. The results suggested that employment related factors that measured employment stability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likelihood of having an outstanding balance on their credit account but were not the influential factors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the outstanding balance. Among other factors, resources factor played the most significant role in determining both the likelihood of having an outstanding balance and the amount of the balance. Although the 1992 and 1998 data represent economic downturn and economic prosperous period, the effects of the factors including employment instability factors were similar between the two periods. This imply that employment instability has increased even in the economic prosperous period. From the findings, several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credit industry, and financial educators were suggested.

* 대표저자, 연결저자(Corresponding Author): 백은영(eunibaek@korea.com)

Key Words : 고용불안정성(Employment instability), 소비자 신용이용(Consumers' use of credit), 더블허들 모델(Double-hurdle model)

I. 서 론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경제구조는 산업 및 기술, 그리고 시장의 다변화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고(Blau, Ferber, & Winkler, 1998) 경제구조의 변화는 노동 시장의 변화를 야기시켰다. 산업의 재구성, 직종의 다변화 등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노동 시장도 빠르게 변모해 왔는데,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들 수 있다. 과거와는 달리 각 기업체들의 잦은 구조조정 및 해고는 직장 수명의 단축과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라는 노동시장의 커다란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Farber(1996)는 이같이 새롭게 변화된 노동 시장의 모습을 고용 불안정성의 증가로 규정하면서 한때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누리왔던 경력이 많은 노동자나 학력수준이 높은 노동자들에게조차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직장에서의 구조조정 및 해고는 미국의 경제 호황기인 1998년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으며(Welch, 2001) 이에 따른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사회 전반에 걸쳐 크게 증가하였다(Walsh, 1999). 최근 미국 경기의 악화는 구조조정 및 해고, 실업 등의 각종 고용문제의 가속화로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개인 및 가계가 느끼는 고용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Welch, 2001).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경제위기를 거치며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고용불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고용과 관련된 문제들이 하나의 위험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계는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되며, 그 중에서도 미래의 노동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은 가계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위험요인 중의 하나이다(Engen & Gruber, 1998). 고용불안정성의 증가로 인해 노동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가계의 재정적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상하였을 뿐만 아니라(Walsh, 1999), 중산층 가정에 게조차 재정적 문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Sullivan, Warren, & Westbrook, 2000). 이러한 고용 불안정 및 이에 따른 재정적 불확실성과 제반 문제들이 증가하면서, 고용이라는 요소가 가계의 재정적인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비자 부채 및 개인 파산 증가 역시 고용시장의 유연성에 따른 고용불안정성의 증가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관련된 요소들이 가계의 신용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단지 몇몇 이론적 연구들에 의해 가계의 신용 이용이 가계의 일시적인 소득 감소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을 뿐이며(Brito & Hartley, 1995; Eisenhaur, 1994), 고용이 소비자 신용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에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IMF라는 커다란 경제적 변화와 이에 따른 경

제변화 및 소득감소가 가계의 경제구조 및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강이주 & 성영애, 1999; 박주영 & 최현자, 2002; 양세정, 2002). 그러나 98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고용시장에도 불안정성이라는 요소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고용상태는 가계의 소득감소의 주요한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불안정성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소비자 신용과 관련,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지만 (e.g, 김경자, 2000; 이기춘 & 박근주, 1997) 고용불안정성과 소비자 신용 이용과의 연관성, 특히 자금유통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갑작스런 소득 감소의 원인이 되는 고용 불안정성과 관련하여 가계의 신용 이용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은 좀 더 세분화하여 제시해 보면, 첫째, 고용불안정성을 나타내는 고용관련 요인들이 가계가 자금유통성 목적으로 신용을 이용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둘째, 고용불안정성이 가계 신용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른 경기상황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고용의 안정성은 외부 거시경제상황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요인중의 하나이므로 서로 다른 경기상황에서 고용불안정성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경기 침체기 바로 직후인 1992년의 자료와 호황기인 1998년 자료를 분석하여 비교해 보았다.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미국의 영향을 비롯하여 빠르게 서구화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미국 및 서구 자본주의

가 경험했던 문제들을 그대로 답습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예가 고용불안정성의 증가와 소비자 신용 이용의 급증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자료를 통하여 경기 호황기뿐 아니라 침체기의 고용불안정성과 소비자 신용이용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기침체와 함께 고용불안정성의 증가, 가계부채 증가 및 신용불량자 양산 등 여러 가지 측면에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향후 우리나라 소비자 신용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I. 문헌고찰

1. 이론적 배경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이론에서는 소비자가 발생 가능한 재정위험에 대하여 위험 발생률을 줄이는 방법과 위험에 대비하여 금전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의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재정위험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후자에 많은 초점이 두어져 왔다. 후자의 경우는 다시 위험에 대비해서 스스로 미리 저축을 해두는 방법과(Risk retention) 발생한 위험을 외부의 자원으로 전이시키는 방법의(Risk transfer) 두 가지로 나누어 논의되고 있다. 위험을 외부 자원으로 전이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의 하나가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며 따라서 재정적 위험관리는 주로 보험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Vaughan, 1997). 그러나 최근 소비자들의 신용 이용이 급증하면서 신용 이용 특히 신용카드와 같이 손쉽게 소비자 신용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위험 발생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의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다(e.g., Brito & Harley, 1995; Eisenhauer, 1994). 이에 Eisenhauer(1994)는 재정적인 위험을 외부

자원으로 전이시키는 방법 가운데 신용카드의 사용이 일시적인 위험에 대해 보험의 대체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여주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을 드는 것 보다 위험 발생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고용불안정성을 하나의 위험요인으로 간주했을 때, 소비자 신용 이용이 일시적 재정 위험에 대한 자금조달의 수단으로서 이용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스트레스 이론(Hill, 1949)은 본 연구의 기본적 이론의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 가족스트레스 이론의 기본적 틀은 가족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가족이 인지하는 정도와 스트레스에 대처할만한 가족원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주어진 스트레스에 대해 자원의 재조정 및 심리적 조정을 통해 가족이 새롭게 적응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가족의 자원과 재정적 욕구, 그리고 심리적인 요소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또한 이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가족의 적응 및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 준다. 이런 가족스트레스 이론의 기본적 틀을 본 연구에 적용해 보면,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외부적 요인은 위험, 특히 고용상태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불안정성이 가족의 적응 및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가족의 적응 및 조정은 결국 그 외부적 요인에 대하여 소비자가 신용을 사용할 것인지와 얼마나 사용하게 될 것인지로 개념화 될 수 있으며, 외부적 요인과 더불어 가족 내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인적, 재정적 자원들 및 가족원이 요구하는 수준, 그리고 태도나 기대 등으로 대변될 수 있는 심리적인 요소들, 그리고 외부적 요인에 대한 인지수준(본 연구에

서는 재정적 안정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이 결과적으로 조정 및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한다.

고용 불안정성에 따른 일시적 소득감소에 대해서 가계는 위험관리에서 제시한 방법들 외에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겠으나, Friedman(1957)의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가계는 비교적 안정된 소비흐름을 유지하기를 원하며, 따라서 소득 흐름이 변화한다 할지라도 지출은 어느 정도 일정수준이 항상 유지된다고 보아 가계의 저축 및 부채행동을 설명하고 있다. 항상소득가설에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소득흐름에 대하여 비교적 일정 수준의 소비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자원의 재분배가 이뤄져야 하며, 자원의 재분배는 평생 동안 창출되는 자원에 비례하여 극대화 하고자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소비는 항상 소득에 의해 결정되고, 반면에 소득의 일시적인 변화분은 저축 혹은 부(負)의 저축(dissaving)에 대한 변화분을 결정한다(Friedman, 1957). 결론적으로, 임시소득이 양의 값이면 저축은 양의 값을 가지게 되며, 임시소득이 음의 값이면 저축 또한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즉 예기치 않은 소득감소가 나타날 경우 부의 저축(dissaving or minus saving)이 발생하게 되고, 이 경우 부의 저축은 가계가 소유하고 있던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소유하고 있던 자산을 유동화 시키는데는 비용이 수반되며 미래의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자금을 보유하는 것은 기회비용을 수반하므로,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과 같은 무담보 대출을 하나의 대안으로 이용하게 된다(Brito & Harley, 1995).

2. 고용불안정성과 소비자 신용 이용

소비자 신용이나 저축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전 생애에 걸친 소득흐름의 다양성이 소비자의 저축 및 부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고용불안정성과 관련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소득 흐름의 다양성은 소득의 불안정성으로 개념화되기도 하는데, 이때 소득의 불안정성을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논란은 계속되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 불안정성을 소득변수의 분산만을 이용하여 측정할 경우의 부정확성을 보완하고자 여러 대리변수들 (예를 들면 실업률이라든지 근속연수)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최근 연구들에 의해 제안되었다(Lusardi, 1997). 또한 Carroll, Dynan과 Krane(1999)는 실업문제가 미래의 소득 불안정성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단순하게 소득 불안정성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고용과 관련하여 실직 확률(probability of job loss)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Focardi와 Jonas(1998)는 위험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개념이기 때문에 위험이라는 개념을 하나의 측정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며, 따라서 여러 개의 대리변수로서 측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선행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 소비자 소득 불안정성 혹은 위험을 대변해 주는 요인으로 고용불안정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고용불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몇몇 고용 관련 대리변수들을 이용한 측정이 경험적 연구에서 실질적인 제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몇몇 실증연구에 따르면, 여러 가지 고용상태와 관련된 변수들을 살펴보는 것이 현재 고용여부보다 가계의 재정 상태나 재정 행동을 설명

하는데 훨씬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고용되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과거에 실업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면 실업기간 동안에 소비자는 부채를 축적하였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재정문제가 고용이 된 현재상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Sullivan et al., 2000). 또한 고용불안정성의 측정에 초점을 두어 연구한 여러 연구들은 몇몇 고용관련변수들을 통해 고용불안정성을 측정하였는데 (Marcotte, 1994; Farber, 1996; Nardone, Veum, & Yates, 1997), 특히 근속연수는 고용 불안정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대리변수로 사용되어 왔다. 이 밖에도 과거의 실업기간, 직업, 자영업 여부, 시간제 혹은 전일제 노동상태(Daly & Duncan, 1997; Lusardi, 2000; Skinner, 1989)등이 대표적으로 고용 불안정성을 측정하는 대리변수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속연수, 직업, 근무형태, 자영업 여부, 이전 실업경험 여부의 변수로 고용불안정성을 측정하였다.

고용과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고용상태 - 즉 고용되어 있는 상태인지 혹은 실업상태인지 - 가 소비자 신용이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있었으나, 단순히 현재 고용상태가 아닌 구체적으로 고용상태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고용 관련 요인의 영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드물다. 몇몇 고용관련변수들을 포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Chen과 DeVaney(2001)는 고용기간이 길거나 자영업자인 경우 더 많은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고, Black과 Morgan(1999)은 소비자 신용연구에서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연체위험은 낮아지며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연체확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Sullivan등(2000)은 과거의 실업경험이 가계재무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시간제 노동자나 단순노무직 종사

자들이 부채를 가질 확률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이들 집단이 부족한 실업수당이나 저축을 대신하여 소비자 신용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비슷한 맥락으로 몇몇의 연구들은 소비자 신용 사용을 소득이 부족한 경우 현재 소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소비에 대한 보험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신용 카드가 소득 창출 능력을 손실한 경우 이에 대한 유용한 안전망(safety net)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Bird, Hagstrom, & Wild, 1997), 일단 위험이 발생한 이후에 신용을 이용해 자금조달을 하는 것이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는 것 보다 이익이라고 주장하였다(Eisenhauer, 1994). 또한 고용과 관련된 요소들은 미래의 불확실한 소득 창출 능력의 상실에 대한 안전망으로서 신용 사용을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Castellani & DeVaney, 2001).

3. 소비자 신용에 관한 선행연구

소비자 신용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다각도로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계의 재정적 욕구 및 자원으로 대변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및 재정적 태도, 혹은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요인을 나타내 주는 변수들이 소비자가 신용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을 수록 신용계좌를 보유하거나 신용계좌에 미지불 잔액을 보유할 확률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Bertaut & Haliassos, 2001; Cargill & Wendel, 1996). 기혼일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미지불 잔액(1)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액수에 있

어서는 이들 가계가 이혼, 사별, 미혼인 경우나 자녀수가 적은 가계에 비해 더 적은 미지불 잔액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en & DeVaney, 2001). 인적 자원의 하나로서 교육수준은 신용이용과 정의 관계를 나타내었고(Baek, Zhou, & Hong, 2000; Bertaut & Haliassos, 2001) 대표적인 재정적 자원에 해당하는 소득, 자산이 신용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고소득 가계와 자산이 많은 가계의 경우 미지불 잔액을 가질 확률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액수면에서는 더 많은 미지불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rgill & Wendel, 1996; Kim & DeVaney, 200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계의 경우는 신용 카드를 더 많이 보유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지만(Canner & Cymak, 1985), 부채상환에 관한 문제점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Sullivan & Fisher, 1988). 몇몇의 연구들은 소득자의 수, 대출한도 및 신용 카드의 숫자를 재정적 자원의 하나로 간주하고 분석하였다. 맞벌이의 경우 비맞벌이가 가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부채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Lin & DeVaney, 1996) 신용카드의 대출한도 및 신용카드 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서 변제되지 않은 미지불 잔액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Baek et al., 2000; Kim & DeVaney, 2001). 인종에 따라서는 백인들이 다른 인종들에 비해 신용카드를 보유할 확률이 더 많았으나, 백인 이외의 인종들이 신용카드 관련 부채에 있어서 미지불 잔액을 가질 확률은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argill & Wendel, 1996).

재정적 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신용 사용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가계 및 위험선호 경향을 지니고 있는

1) 리볼빙(Revolving) 신용 카드를 사용한 후 사용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 상환되지 않고 신용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을 의미한다.

가계의 경우 신용계좌를 보유하거나 계좌에 미지불 잔액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e.g., Chien & DeVaney, 2001; Baek et al., 2000). 대출한도와 관련해서는 선행연구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 주고 있으나 미래 소득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요인은 소비자 부채 증가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생애주기가설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다. 부채상환습관요인과 관련하여서는 Kim과 DeVaney는 신용카드 부채를 정해진 상환기간 내에 갚지 않는 가계들이 상환 기한에 맞춰 부채를 상환하는 가계들에 비해 더 많은 신용 카드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1992년 및 1998년의 소비자 재정 조사 (Survey of Consumer Finances (SCF))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SCF는 3년마다 한번씩 수집되는 자료로서 미국 가계의 재정적인 상태를 잘 나타내 주는 대표적인 전국 규모의 데이터이다. 1992년과 1998년의 SCF가 선택된 이유는 1992년의 데이터는 경기침체 직후에 수집되었으며 1998년의 데이터는 경기 호경기 에 수집되었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경제 상황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가

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 경제적인 효과 또한 분석할 수 있다. 연구대상으로는 1992년도와 1998년도의 SCF 자료내에서 경제 활동 인구만 포함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992년 자료에서 2,945의 가계를, 1998자료에서 3,225의 가계를 포함하였다.

2. 연구모델 및 분석방법

약 48퍼센트에 해당하는 가계가 신용계좌에 미지불 채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종속 변수 상에서 0의 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선행회귀분석 방법 보다는 tobit 분석이 종종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tobit 모델은 몇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데, 종속변수가 가지는 모든 0의 값이 각 해법(Coner solution)을 가진다고 가정하며, 동일한 독립변수들이 실질적으로 관찰되는 미지불 채무의 액수와 미지불 채무를 가질 확률 모두에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tobit모델이 가져다주는 이러한 제한요인들로 인해 본 연구는 연구 모델 측정 방법으로서 Cragg(1971)가 제시한 Double hurdle모델²⁾을 사용하였다. Double hurdle 모델을 적용한 소비자 신용이용에 대한 연구 모델은 다음과 같다.

$$Di1^* = z_{i1} \alpha_1 + \mu_{i1} \quad (3.1)$$

$$Di2^* = z_{i2} \alpha_2 + \mu_{i2} \quad (3.2)$$

2) Double-hurdle model은 관찰하고자 하는 값, 즉 종속변수에 0의 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 사용될 수 있는 분석방법의 하나로 기존의 tobit분석과 달리 모든 0의 값이 양의 값을 지닐 확률을 가진다고 임의로 가정하지 않으며 관찰하고자 하는 0의 값을 그 자체 값으로 가정하지 않고 0의 값이 나오기 전에 0의 값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전 결정을 두 단계의(혹은 여러 단계) 과정을 거쳐 심도 있게 분석한다. 본 연구의 예를 들면, 미지불 잔액 금액에 대해 관찰하고자 하는데, 0의 값은 단순히 미지불 잔액이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미지불 잔액을 가지지 않았다고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없는 것이며 그 이전에 신용 카드 자체를 가지지 않을 것을 결정했기 때문(혹은 아예 신용카드를 발급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본다. Double-hurdle model의 또 다른 장점은 각각의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각 단계를 나누어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Y_i^* = x_i \beta + \varepsilon_i \quad (3.3)$$

$Y_i = x_i \beta + \varepsilon_i$, only when

$Di1^* > 0$, $Di2^* > 0$, and $Y_i^* > 0$;

$$Y_i = 0 \text{ otherwise} \quad (3.4)$$

Double hurdle 모델에서는 소비자 신용계좌의 미지불 잔액의 크기(Y_i)는 소비자가 신용계좌를 가지기로 하고($Di1^* > 0$), 또한 그 신용계좌에 미지불 잔액을 가지기로 결정한 후($Di2^* > 0$), 실질적으로 그 계좌에 미지불 잔액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될 때($Y_i^* > 0$) 관찰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double hurdle 모델이 가지고 있는 두 단계에 걸친 결정 과정에 하나의 결정 과정이 추가되었는데(식 (3.1)), 이는 본 연구의 표본에는 신용계좌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가계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미지불 잔액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앞서 신용계좌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선행된다고 보기 때문이다(Bertaut & Haliassos, 2001; Duca & Whitesell, 1995). z_1 , z_2 , x_i 는 설명 변수들의 벡터로서 동일한 변수들로 구성되어질 수도 있지만, Double hurdle 모델에서 보다 정확한 계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동일하지 않은 변수들의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Le & Maddala, 1985; Newman, Henchion & Matthews,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각 추정식에 해당하는 설명 변수들을 다소 다르게 구성하였다. 분석방법은 신용계좌 및 그 계좌에 대해 미지불 금액을 가질 확률(3.1과 3.2번)에 대해서는 이항 프로빗(bivariate probit) 분석을 통해 한번에 추정되었고, 또한 미지불 잔액의 액수에 대해서는 truncated regression 분석을 사용하여 두 단계에 걸쳐 추정되었다. 모든 분석에 앞서 92

년도 자료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98년 물가에 맞추어 조정하였다.³⁾

3.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소비자 신용은 신용카드와 같이 담보 없이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지불 기한 및 금액조절이 비교적 자유로운 포괄계약형(open-ended) 신용만을 포함한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소비자 신용을 이용한 후 이용대금을 완전히 지불하지 못한 경우를 자금 융통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Canner & Cymak, 1986; Lee & Kwon, 2002), 본 연구에서는 이용금액 전체가 아닌 이용 후의 신용 계좌에 미지불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Double hurdle을 적용한 소비자 신용 이용에 대한 연구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세 가지 종속변수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이항 프로빗(bivariate probit) 분석에서는 1) 신용계좌를 가질 확률과 2) 신용계좌에 미지불 잔액을 가질 확률을 추정하기 위해 두 개의 이항변수가 종속변수로 사용되었고, 3) 미지불 잔액에 대한 액수는 연속변수로서 가장 최근의 부채상황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신용계좌에 남아있는 미지불 잔액의 총 금액으로 측정되었다. 독립변수는 이론적인 틀과 기존의 연구에 근거하여 여섯 가지의 큰 요인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혹은 위험은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개념화되었는데, 고용불안정성은 5개의 고용관련 대리변수에 의해 측정되었다. 즉, 선행연구에 따라 고용불안정성은 근속연수, 직업, 전일제/시간제 근무, 자영업 여부, 이전 실업경험 여부로 측정되었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관리

3)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92년 자료를 0.861로 나누어 98년 \$가치로 환산하였다.

직, 전문직이 단순노무직에 비해 고용 상태가 보다 안정적인 것을 나타내고, 시간제 근무 보다는 전일제 근무가 비자영업자인 경우, 과

거에 실업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가 보다 안정적인 고용상태임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재정적 수요에 대한 개인적 차이를

<표 1> 변수의 측정 방법

변 수	측 정 방 법
신용계좌 1) 계좌를 가질 확률 2) 미지불 잔액을 가질 확률 3) 미지불 잔액	은행계 카드, 백화점 및 대형마트 카드, 아멕스, 다이너스 클럽, 여행관련 카드 및 무담보 신용거래가 가능한 각종 신용계좌 신용계좌를 가지고 있음 = 1; 없음 = 0 미지불 잔액을 가지고 있음 =1; 없음 =0 모든 신용계좌에 가지로 있는 미지불 잔액의 합
고용불안정성 근속연수 직업 관리직·전문직 기술직·판매직 단순노무직 근무형태 전일제근무 / 시간제 근무 자영업자 이전의 실업경험여부	연속 변수 각각에 해당=1; 해당하지 않음=0 전일제근무=1; 시간제 근무=0 자영업자=1; 비자영업자=0 지난 12달 동안 실업을 경험한 적 있음=1; 없음=0
재정적 욕구 연령 결혼상태 결혼/ 이혼·별거·사별/ 미혼·독신 자녀수	연속 변수 각각에 해당=1; 해당하지 않음=0 연속 변수
자원 교육수준 고졸 미만 고졸 전문대졸/4년대졸 중퇴 4년대졸이상 맞벌이 가계 현재 직업유무 소득 (log) 순자산 (log) 주택소유여부 신용카드 한도 신용카드 보유수 친지나 친구로부터의 부채유무 신용제한에 대한 경험	각각에 해당=1; 해당하지 않음=0 맞벌이 가계=1; 비 맞벌이 가계=0 취업한 상태=1; 실업상태=0 연속변수 연속변수 자가=1; 기타=0 연속 변수 연속 변수 부채 있음=1; 없음=0 신용대출에 제한받은 적 있음=1; 없음=0

<표 1 계속> 변수의 측정 방법

변수	측정 방법
선호	
신용에 대한 일반적 태도 긍정적/부정적/중립적	각각에 해당=1; 해당하지 않음=0
소득감소시 신용사용 태도 긍정적 / 부정적	각각에 해당=1; 해당하지 않음=0
투자 위험에 대한 태도 위험추구형/중립형/회피형	각각에 해당=1; 해당하지 않음=0
신용대출상환습관 항시 완납 일정잔액 미납 상습적 미납	각각에 해당=1; 해당하지 않음=0
소득에 대한 기대감 소득 상승 / 불변 / 하락	각각에 해당=1; 해당하지 않음=0
재정적 안정도	각각에 해당=1; 해당하지 않음=0
인지적 재정안정도 재정적 문제 경험 유무	
인종	백인=1; 비백인=0

반영하기 위해 나이, 결혼 여부 및 자녀수 등이 포함되었으며, 자원을 나타내는 변수는 가계가 지니고 있는 인적자원 및 재정적 자원을 나타내는 변수들로 구성되었다. 가계 선호의 차이는 태도 및 기대, 채무 상환 습관 등의 변수로 측정하였으며 가계의 재정적 안정은 주관적, 객관적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측정하였고 인종은 가계의 특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 독립변수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변수측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표1에 제시되어 있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1992년과 1998년도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조사대상자들은 재정적 욕구, 자원, 선호 그리

고 인종적 특성들을 살펴볼 때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과 1998년 두 기간의 경제상황의 차이로 인하여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던 고용상태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호황기에도 꾸준히 증가해온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해 98년의 고용관련 상황들이 92년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1998년에는 1992년에 비해 미혼 혹은 독신 가정의 비율이 16%에서 21%로 증가했으며, 재정적 자원에 있어서는 약간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또한 1992년의 조사 대상자 중 17%에 해당하는 가계가 투자나 저축을 결정할 때 평균 이상의 재정적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1998년에는 28%에 이르는 조사대상자들이 재정적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1998년 미국

주식시장의 활황 장세를 잘 나타내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재정적 안정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1998년이 1992년보다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가계가 상대적으로 높게

<표 2> 조사대상자의 특성

	1992 SCF	1998 SCF
변수	평균 (표준편차) / %	평균 (표준편차) / %
종속변수		
신용계좌 보유가구	85%	83%
미지불 잔액 보유가구	49%	50.7%
미지불 잔액(\$)	1,282.12(3,481)	2,265.55(5,404)
고용불안정성		
근속연수	8.51(9.23)	8.61(9.19)
직업		
관리직/전문직	30.81%	33.05%
기술직/판매직	24.14%	19.08%
단순노무직	35.38%	42.91%
전시간제 근로자	83.99%	87.98%
자영업자	15.02%	14.12%
이전의 실업경험여부	-	14.33%
재정적 욕구		
연령	41.63(12.32)	41.73(11.95)
결혼상태		
결혼	63.89%	56.16%
이혼/별거/사별	19.76%	22.87%
미혼/독신	16.35%	20.97%
자녀수	0.89(1.16)	0.88(1.15)
자원		
교육수준		
고졸 미만	12.81%	13.95%
고졸	30.28%	28.16%
전문대졸/4년대졸 중퇴	23.07%	25.89%
4년대졸이상	33.86%	32.00%
맞벌이 가계	38.30%	40.03%
현재 직업유무	87.75%	92.82%
소득(\$)	54,405.27(105,995)	60,019.74(254,548)
순자산(\$)	230,549.69(1,486,458)	269,770.3 (1,876,160)
자가(주택소유자)	60.31%	61.91%
신용카드 한도(\$)	6,614.39 (11,956)	12,585.56(22,488)
신용카드 보유수	2.04(4.50)	3.85(3.96)
친지나 친구로부터의 부채유무	11.30%	9.39%
신용제한에 대한 경험	26.99%	27.46%

<표 2 계속> 조사대상자의 특성

변수	1992 SCF	1998 SCF
	평균 (표준편차) / %	평균 (표준편차) / %
선호		
신용에 대한 일반적 태도		
긍정적	35.97%	31.40%
중립적	28.32%	36.19%
부정적	35.71%	32.42%
소득감소 때 신용을 사용하는 데 대한 태도		
긍정적	44.96%	44.92%
투자 위험에 대한 태도		
위험 추구형	17.22%	27.92%
위험 중립형	40.77%	41.17%
위험 회피형	42.00%	30.91%
소득에 대한 기대감		
소득 상승	30.83%	29.22%
소득 불변	42.50%	46.71%
소득 하락	26.67%	24.07%
신용대출상환습관		
항시 완납	35.07%	35.24%
일정잔액 미납	16.01%	16.35%
상습적 미납	24.48%	24.14%
재정적 안정도		
인지적 재정안정도	64.96%	68.66%
재정적 문제 경험 유무	36.09%	30.78%
인종		
백인	74.73%	76.49%

나타난 반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느꼈다고 보고한 가구는 1992년이 1998년 보다 더 많았다.

2. Double hurdle 모델 분석결과

1) 1992 자료 분석 결과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이항 프로빗 분석에서는 신용계좌를 보유할 확률과 신용 계좌에 미지불 잔액을 보유할 확률을 동시에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1992년 조사대상자 중 85%가 신용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계좌보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주로 인

구통계학적 변수와 신용사용에 대한 태도 등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의 결과들이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 종사자들이 기술직, 판매직 종사자들에 비해 신용계좌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이거나 자녀를 적게 가지고 있는 가계가 신용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확률은 더 높았다. 자원변수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높은 교육수준, 현재의 고용상태, 소득수준 및 주택보유여부는 신용계좌를 가질 확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인의 경우 백인이 아닌 경우에 비해 신용계좌를 보유할 확률이 높았다.

신용계좌에 미지불 잔액을 가질 확률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신용계좌를 보유한 가계의 49%가 미지불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별로 살펴보면, 고용불안정성 요인을 나타내는 고용관련 변수들이 미지불 잔액을 보유할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속연수가 길수록 미지불 잔액을 가질 확률은 낮아졌으며, 종일제 종사자와 비자영업자가 시간제 종사자나 자영업자에 비해 미지불 잔액을 보유할 확률은 높아졌다. 자원관련변수도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인적자원과 재정적 자원을 나타내는 모든 변수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거나 맞벌이일수록, 현재 고용되어져 있는 상태일수록 미지불 잔액을 보유할 확률이 더 높았다. 재정적 자원 즉, 소득 및 자산이 많은 경우 미지불 잔액을 보유할 확률은 낮아졌으나, 주택을 소유한 가계의 경우 미지불 잔액을 보유할 확률이 더 높았다. 예상과는 달리 신용사용에 제한이 있었던 가계가 미지불 잔액을 보유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선호 요인 역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용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가계가 중립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가계에 비해 미지불 잔액을 보유할 확률이 낮았다.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미지불 잔액 액수에 대한 Truncated 회귀분석에서는 신용카드 수, 신용한도, 부채상환 습관등의 변수들의 영향력이 이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들 변수는 소비자 신용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본 연구와 같이 두 단계에 걸쳐 분석될 때 미지불 잔액을 가질 확률보다는 미지불 잔액의 액수를 예측하기 위한 설명변수들로 주로 사용되어져 온 변수들이다(e.g., Bertaut & Haliassos, 2001; Cargill & Wendel, 1996). 결

과를 살펴보면 미지불 잔액을 보유할 확률을 분석한 결과와는 달리 고용관련변수나 재정적 요구, 그리고 인적자원 요인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가계재정 문제를 초래하는 한 요인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는 이혼, 별거, 또는 사별한 상태의 가계가 (Johnson & Widdows, 1985; Sullivan et. al., 2000) 독신이나 미혼가계에 비해 더 많은 미지불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불 잔액의 액수에 대해서는 재정관련변수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신용관련 변수들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신용대출 한도와 신용 카드 소유 숫자가 많을수록 미지불 잔액의 액수 또한 증가하였다. 대출에 있어서 제한을 받았거나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해 더 많은 미지불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상환습관도 미지불 잔액의 액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기한내에 항상 완납하는 가계는 때때로 상환기일을 지키는 가계에 비해 더 적은 미지불 액수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거의 기한내에 상환한 적이 없는 가계는 더 많은 미지불 잔액을 보유하고 있었다.

2) 1998년 자료 분석결과

1992년 자료에 이어 1998년 자료도 동일 모델 및 방법을 통해 분석되었다. 이렇게 모든 변수에 대해 두 기간을 별도로 분석하게 되면, 모델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과 기간변수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두 기간동안 각 변수들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해 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Wooldridge, 2000). 고용불안정성을 포함한 독립 변수들이 92년 조사대상자와 유사한 특성을 보였으며, 따라서 주요 변수들의 영향력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직업, 결혼 상태, 자녀수, 교육수준, 현 고용상태, 주택소

<표 3> Double hurdle 모델 분석결과 : 1992년

독립변수	신용계좌 보유여부(n=2945)		미지불 잔액 보유여부(n=2503)		미지불 잔액 금액(n=1226)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고용불안정성						
근속연수	-.2	--	-0.01 ***	0.00	0.02	0.42
직업(기술직/판매직) ¹						
관리직/전문직	0.15	0.11	-0.07	0.07	0.04	0.10
단순노무직	-0.39 ***	0.09	-0.09	0.07	-0.08	0.10
전일제근무	--	--	0.03 ***	0.09	0.03	0.15
자영업자	--	--	-0.02 **	0.06	0.10	0.09
재정적 욕구						
연령	-0.01	0.00	-0.00	0.00	0.00	0.01
결혼상태(미혼/독신)						
결혼	0.44 ***	0.09	0.00	0.09	0.07	0.14
이혼/별거/사별	-0.07	0.10	-0.04	0.09	0.28 *	0.14
자녀수	-0.08 **	0.03	0.04	0.02	0.04	0.03
자원						
교육수준(고졸미만)						
고졸	0.20 **	0.09	0.22 **	0.08	-0.11	0.12
전문대졸/4년제대학 중퇴	0.44 ***	0.12	0.31 **	0.09	-0.17	0.13
4년대졸 이상	0.72 ***	0.12	0.09	0.09	-0.09	0.13
맞벌이 가계	--	--	0.03 ***	0.06	0.08	0.09
현재 직업유무(실업상태)						
취업상태	0.54 ***	0.09	0.24 *	0.11	0.00	0.18
소득(log)	0.06 *	0.03	-0.06 **	0.02	0.21 ***	0.04
순자산(log)	0.01	0.01	-0.04 ***	0.01	-0.03 **	0.01
주택소유	0.38 ***	0.08	0.31 ***	0.07	0.05	0.09
신용한도(log)	--	--	--	--	0.16 ***	0.01
신용카드 갯수	--	--	--	--	0.03 ***	0.01
친지, 친구로부터의 부채유무	--	--	--	--	0.05	0.10
신용제한에 대한 경험	-0.08	0.07	0.25 ***	0.06	0.20 *	0.08
소비자 선호						
신용에 대한 일반적 태도						
긍정적	0.15	0.09	0.00	0.06	0.01	0.09
부정적	-0.03	0.09	-0.22 **	0.06	0.03	0.09
(중립적)						
소득감소시 신용을 사용하는데 대한 태도 (부정적)						
긍정적	--	--	0.04	0.05	0.05	0.07
투자 위험에 대한 태도						
위험 추구형	--	--	-0.15 *	0.06	0.07	0.10
위험 회피형	--	--	0.07	0.06	0.11	0.08
(위험 중립형)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						
소득 상승	--	--	0.04	0.05	0.02	0.09
소득하락	--	--	0.01	0.06	-0.14	0.09
(소득불변)						
부채상환습관 (일정잔액 미납)						
항상 완납	--	--	--	--	-0.90 ***	0.10
상습적 미납	--	--	--	--	0.52 ***	0.08

<표 3 계속> Double hurdle 모델 분석결과 : 1992년

독립변수	신용계좌 보유여부(n=2945)		미지불 잔액 보유여부(n=2503)		미지불 잔액 금액(n=1226)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재정적 인지도						
인지적 재정안정도	--	--	0.01	0.05	0.01	0.08
재정적 문제경험 유무	--	--	0.08	0.05	0.32 ***	0.08
인종 (비백인)						
백인	0.32 ***	0.76	0.05	0.06	-0.00	0.09
상수	-1.04 ***	0.28	0.02	0.23	3.59 ***	0.42
로(Rho) / 시그마(sigma)		0.99	0.01 ***		0.22	0.03 ***
Log likelihood				-2267.10		-1978.001

주: ¹ 괄호안은 기준집단임. ²--는 해당변수가 그 모델에 포함되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함.

* p < .05 ** p < .01 *** p < .001.

유여부 및 인종이 신용계좌 보유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신용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조사대상자 중 51%인 1,365 가계가 미지불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2년과 유사하게 고용관련 변수를 포함, 모든 자원관련 변수들과 소비자 선호 및 재정적 안정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92년과 마찬가지로 근속연수와 자영업 종사는 미지불 잔액을 가질 확률과는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92년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분석할 수 없었던 과거 실업여부도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거에 실업을 경험했던 가계가 미지불 잔액을 보유할 확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불 잔액을 보유할 확률을 결정하는데 자원 관련변수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92년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더 많은 인적자원의 보유는 미지불 잔액을 가질 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반면, 재정적 자원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98년 결과에서는 과거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 가계가 미지불 잔액을 보유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주었다.

미지불 잔액의 액수에 대한 Truncated 회귀 분석 결과 또한, 92년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재정적 자원과 신용관련 변수들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부채상환습관과

과거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했는지의 여부가 미지불 잔액의 액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합리적인 부채상환습관이 미지불 잔액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92년과 마찬가지로, 재정 안정도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경험 유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재정적 안정도보다는 미지불 잔액을 결정하는데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92년의 결과와는 달리 98년에는 자영업 종사자들이 비자영업자에 비해 더 많은 미지불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 종사자들이 신용계좌에 미지불 잔액을 가질 확률 자체는 낮아도 일단 미지불 잔액을 보유하게 되면, 비자영업자들에 비해 더 많은 잔액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결과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는 소비자들이 단기적 소비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다 쉽게 소비자 신용을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용액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고용관련 위험이 다른 종류의 위험에 비해 비교적 일시적인 위험에 속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고용불안정성은 소비자 신용 이용 가능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신용 이용의

<표 4> Double hurdle 모델 분석결과 : 1998년

독립변수	신용계좌 보유여부(n=3225)		미지불 잔액 보유여부(n=2677)		미지불 잔액 금액(n=1365)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고용불안정성						
근속연수	--	--	-0.01 **	0.00	-0.01	0.00
직업(기술직/판매직)						
관리직/전문직	0.25 *	0.10	-0.07	0.07	0.05	0.10
단순노무직	-0.08	0.09	-0.08	0.07	-0.05	0.09
전일제근무	--	--	0.05	0.10	0.14	0.14
자영업자	--	--	-0.29 ***	0.06	0.28 **	0.09
이전의 실업경험여부	--	--	0.18 *	0.08	0.15	0.13
재정적 욕구						
연령	0.00	0.00	-0.01	0.00	0.0	0.00
결혼상태(미혼/독신)						
결혼	0.42 ***	0.10	0.31 ***	0.08	0.19	0.12
이혼/별거/사별	0.13	0.10	0.18 *	0.08	0.22	0.12
자녀수	-0.06 *	0.03	-0.04	0.02	0.05	0.03
자원						
교육수준(고졸미만)						
고졸	0.44 ***	0.10	0.42 ***	0.09	0.05	0.13
전문대졸/4년제대학 중퇴	0.74 ***	0.10	0.53 ***	0.09	0.14	0.13
4년대졸 이상	1.14 ***	0.12	0.29 **	0.09	0.04	0.14
맞벌이 가계	--	--	0.18 ***	0.05	-0.05	0.08
현재 직업유무(실업상태)						
취업상태	0.34 *	0.14	0.17	0.14	0.34	0.20
소득 (log)	0.04	0.02	-0.06 **	0.02	0.05	0.03
순자산 (log)	0.02	0.01	-0.04 ***	0.01	-0.05 ***	0.01
주택소유	0.45 ***	0.08	0.30 ***	0.06	0.19 *	0.09
신용한도 (log)	--	--	--	--	0.16 ***	0.02
신용카드 갯수	--	--	--	--	0.09 ***	0.01
친지, 친구로부터의 부채유무	--	--	--	--	0.05	0.11
신용제한에 대한 경험	0.13	0.07	0.51 ***	0.06	0.12	0.08
소비자 선호						
신용에 대한 일반적 태도						
긍정적	0.23 **	0.08	0.12 *	0.06	0.01	0.08
부정적	-0.15 *	0.08	-0.23 ***	0.06	0.09	0.09
(중립적)						
소득감소시 신용을 사용하지 않는데 대한 태도 (부정적)						
긍정적	--	--	0.05	0.05	0.08	0.07
투자 위험에 대한 태도						
위험 추구형	--	--	0.03	0.06	0.13	0.08
위험 회피형	--	--	0.01	0.06	-0.01	0.09
(위험 중립형)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						
소득 상승	--	--	-0.08	0.05	0.03	0.08
소득하락	--	--	-0.05	0.06	-0.10	0.09
(소득불변)						
부채상환습관 (일정잔액미납)						
항상 완납	--	--	--	--	-1.06 ***	0.09
상습적 미납	--	--	--	--	0.57 ***	0.08

<표 4 계속> Double hurdle 모델 분석결과 : 1998년

독립변수	신용거래 보유여부(n=3225)		미지불 잔액 보유여부(n=2677)		미지불 잔액 금액(n=1365)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재정적 인지도						
인지적 제약안정도	--	--	0.10	0.05	0.08	0.08
재정적 문제경험 유무	--	--	0.19 ***	0.05	0.27 **	0.08
인종 (비백인)						
백인	0.26 ***	0.07	0.49	0.06	0.20 *	0.09
상수	-1.41 ***	0.25	-0.02	0.23	4.02	0.42 *
로(Rho)		0.96		0.02 ***		1.22 0.02 ***
Log likelihood				-2513.865		-2193.375

주: ¹ 괄호안은 기준집단임. ²--는 해당변수가 그 모델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 p <.05 ** p <.01 *** p <.001.

정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92년과 98년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소비자 신용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들은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기 호황기인 98년에도 꾸준히 증가한 고용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외부 경기에 가장 민감할 수 있는 고용불안정성 효과조차도 두 기간간에 유사하게 나타났다기 때문에 해석해 볼 수 있다. 92년과 98년 두 기간에 걸쳐 공통적으로 소비자 신용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원관련요인들로 나타났으며, 재정 자원관련 요인이 미지불 잔액을 가질 가능성 및 금액 모두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면 인적자원 요인은 고용관련 요인과 유사하게 미지불 잔액을 가질 가능성을 증가시키기는 했지만 그 액수에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최근 경기침체와 고용 안정성의 변화에 따라 본 연구는 새로이 등장한 위험요인의 하나로서 고용관련 요인이 소비자 신용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불안

정성 요인은 소비자들이 소비자 신용을 자금 융통성 목적으로 사용할 확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용 정도를 나타내 주는 액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신용카드와 같이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지불 기한 및 금액조절이 비교적 자유로운 형태의 소비자 신용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시적 자금 융통을 위한 통로를 제시해 주고는 있으나, 남용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원요인과 관련한 결과에 따르면, 인적 자원이 많은 가계일수록 자금 융통 수단으로서 신용 이용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적자본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인적자본이론에(Bryant, 1990) 의하면 개인은 교육에 대한 수익률이 그것의 대안이 될만한 투자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같거나 커질 때까지 인적자본에 계속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은 미래의 소득을 증가시키고자 정규 교육을 받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개인들은 미래에 더 많은 소득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전생애에 걸쳐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득, 소비흐름의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기꺼이 쉽

게 돈을 빌리고자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적 자원의 하나로 포함되어진 맞벌이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맞벌이 가계일수록 미지불 잔액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배우자의 직업이 불안정한 고용 조건으로 인해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면 다른 배우자의 소득이 하나의 보험 개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재정적 자원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재정적 자원이 많을 수록 미지불 채무를 가지게 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정적 자원이 많은 가계일수록 소득이 감소했을 때 일시적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 신용을 이용하기보다는 편리성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소비자 신용을 이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e.g. Bird et al., 1997). 이는 재정적 자원이 많은 가계일수록 충분한 재정적 자원으로 인하여 일시적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지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대출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셋째, 1992년과 1998년 두 기간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몇몇 변수를 제외하고는 고용불안정성 요인을 포함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경제상황이 서로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불안정성 요인이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소비자 신용을 이용하는데 미치는 영향에 크게 차이가 없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연구에서 주장된 바와 같이(e.g. Feber, 1996) 고용 불안정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간 중에도 증가해 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고용 환경은 거시 경제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용 상태는 두 기간 사이의 신용이용에 대해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90년대 말 고용 불안정의 증대는 거시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외부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감

소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고용불안정성 요인 뿐 아니라 소비자 신용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의 효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고용불안정성을 측정할 때의 대표적인 대리변수로 사용되는 근속연수는 92년과 98년 모두 미지불 잔액을 보유할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와는 달리 최근 한 직장에서 꾸준히 근무하는 근속연수는 점점 짧아지면서 소비자 신용 이용이 급격히 증가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세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자금유통 수단으로서 소비자 신용을 이용할 확률도 함께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공공정책 및 신용대출 사업자와 채무관련 서비스 종사자, 그리고 채무관련 교육자에 대해 몇가지 제언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신용대출 사업자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신용대출 사업자들은 경제 성장기에 사용했던 소비자들에 대한 공격적인 신용한도의 확장 및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은 소비자에 대한 신용대출의 확장과 같은 정책들에 대해서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Stavins, 2000). 채무불이행 및 개인파산의 지속적인 증가를 감안할 때, 정부는 신용에 문제가 있는 소비자에 대한 신용대출 사업자의 신용공여 행위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소비자뿐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의 이익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와 효율적인 신용사용에 대한 배분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을 통한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나의 위협적인 요소로 대두되면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소비를 위한 일시적 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 소비자 신용의 이용은 가계가 소비수준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 신용시장은 정

부정책의 뒷받침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이미 무분별하고 공격적인 시장확장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는 신용불량자와 최근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가로 인한 실업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면 정부 및 신용대출 사업자에 의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재무관련 교육자들이나 상담사들이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가계에 관한 것이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던 가계들은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해 더 많은 미지불 잔액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러한 것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가계들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신용을 자금조달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 또는 가계가 예기치 못한 소득관련 문제에 부딪혔을 때, 예치해둔 저축의 사용이 아닌 신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신용사용은 재정적인 압박을 일시적으로는 경감시켜줄 수도 있으나, 장래에 지게될 부채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가계에 더욱 큰 재정적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재무관련 교육자들과 상담사들은 고객들의 재정적 욕구와 자원, 그리고 고용상태 등을 평가한 이후에 각 가계 상황에 맞는 적당한 수준의 신용대출 한도 금액을 제안해야만 한다. 그리고 신용사용의 장단점 및 사용에 대한 결과와 책임에 대해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신용한도 및 신용카드 개수, 그리고 대출상환 습관등 신용과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결과는 그만큼 신용사용과 관련하여 올바른 사용 및 부채의 효율적 관리등의 기본적인 재무관련 교육이 부족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고용 및 이와 관련된 노동관련 소득 위험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갑작스런

죽음, 신체장애, 혹은 의료비용 등 다른 종류의 위험 또는 불확실성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후속연구에서는 다른 종류의 위험을 포함할 수 있으며, 부가된 위험이 소비자 신용 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경기 호황기 및 침체기 두 기간 동안에 고용불안정성이라는 요인이 소비자 신용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서 고용불안정성과 경기침체가 맞물려있는 우리나라 소비자 신용문제를 이해하는데 비교할 만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인한 소득의 감소가 소비자로서 하여금 자금용 통수단의 하나로서 소비자 신용을 이용할 확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보여주었으며, 경기 침체기 뿐 아니라 호황기에도 외부 경기상황보다는 증가된 고용불안정성이 소비자 신용이용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 주었다. 이 같은 결과는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정성이라는 두 요소가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 파산 및 신용불량자 증가 문제가 더욱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고용안정화 및 실업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며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신용의 이용과 신용 이용에 따른 책임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미국 및 서구 자본주의의 경제구조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그들이 겪었던 경제관련 문제들을 답습해 나가고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주제의 연구가 우리나라 자료의 분석을 통해 직접 적용되었을 경우 어떠한 결과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미국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가계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용통을 위한 수단으로 소비자 신용을 쉽게 이용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기는 하였으나, 다행히도 남용하고 있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가 우리나라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하였을 경우에도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신용을 사용하되 남용하지 않는 결과의 이면에는 어떠한 정책과 사회적 배경이 작용하였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은 우리 사회의 신용남용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소비자 신용연구는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소비자 신용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며 현 경제상황에 맞는 해결책 및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한·미 두 국가간 연구결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이주·성영애(1999). 가계소득감소 경험 여부가 가계의 경제적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10(2), 71-83.
- 2) 김경자(2000). 우리나라 소비자신용의 이용 실태와 합리화 방안. *대한가정학회지* 제 38(2), 79-89.
- 3) 박주영·최현자(2002).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가계 포트폴리오 변화유형 및 가계유형별 가계 특성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51-162.
- 4) 양세정(2002). 경제위기상황에서의 소득감소에 따른 가계경제구조 대응 행태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81-93.
- 5) 이기춘·박근주(1997). 소비자 신용 연체행동에 대한 관련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139-152.
- 6) Baek, E., Zhou, L., & Hong, G-S.(2000). Predictors of the consumer debt burden: A life-cycle perspective. In J. E. Morris & C. R. Hayhoe (Eds.), *Proceedings of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141-150.
- 7) Bertaut, C. C., & Haliassos, M.(2001). Debt revolvers for self-control. Working Paper, Retrieved March 5, 2002, from <http://www.nber.org/~confer/2001/si2001/bertaut.pdf>
- 8) Bird, E. J., Hagstrom, P. A., & Wild, R. (1997). Credit cards and the poor. Discussion Paper No. 1148-97,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Retrieved December, 18, 2001 from <http://www.ssc.wisc.edu/irp/pubs/dp114897.pdf>
- 9) Black, S. E., & Morgan, D. P.(1999). Meet the new borrowers.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Current Issues in Economics and Finance* 5(3), 1-6.
- 10) Blau, F. D., Ferber, M. A., & Winkler, A. E.(1998). *The economics of women, men, and work*.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Inc.
- 11) Brito, D. L., & Hartley, P. R.(1995). Consumer rationality and credit card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3(2), 400-433.
- 12) Bryant, K. W.(1990).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3) Canner, G. B., & Cymak, A. W.(1985). Recent developments in credit card holding and use patterns among U.S. families. *Journal of Retail Banking* VII(3), 63- 74.
- 14) Canner, G. B., & Cymak, A. W.(1986). Determinants of consumer credit cards usage patterns. *Journal of Retail Banking* VIII(3), 9-18.

- 15) Cargill, T. F., & Wendel, J.(1996). Bank credit cards: Consumer irrationality versus market force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0(2), 373- 389.
- 16) Carroll, C. D., Dynan, K. E., & Krane, S. D.(1999). Unemployment risk and precautionary wealth: Evidence from households' balance sheets. Working paper, Retrieved January 25, 2002, from <http://www.econ.jhu.edu/papers/Carroll/unempl.pdf>
- 17) Castellani, G., & DeVaney, S. A.(2001). Using credit to cover living expenses: A profile of a potentially risky behavior. *Family Economics and Nutrition Review* 13(2), 12- 20.
- 18) Chien, Y. & DeVaney, S. A.(2001). The effects of credit attitude and socioeconomic factors on credit card and installment debt.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5(1), 162-179.
- 19) Cragg, J. G.(1971). Some statistical models for limited dependent variables with application to the demand for durable goods. *Econometrica* 39(5), 829-844.
- 20) Daly, M. C., & Duncan, G. J.(1997). Earnings mobility and instability, 1969-1995. Working paper,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Retrieved February, 13, 2002, from <http://www.frbsf.org/econsrch/workingp/97-12.pdf>
- 21) Duca, J. V., & Whitesell, W. C.(1995). Credit cards and money demand : A cross-sectional study. *Jouran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27(2), 604-623.
- 22) Engen, E. M., & Gruber, J.(1998). unemployment insurance and precautionary saving. NBER Working paper 5252, Retrieved January 26, 2002 from <http://econ-www.mit.edu/faculty/gruberj/files/uisave2.pdf>
- 23) Eisenhauer, J. G.(1994). Household use of open-end credit to finance risk.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8(1), 154- 169.
- 24) Farber, H. S.(1996). *The changing face of job loss in the United States, 1981-1993*. Working Paper No. 360, NJ: Industrial Relations Section, Princeton University.
- 25) Focardi, S., & Jonas, C.(1998). *Risk management: Framework, methods, and practice*. New Hope, Pennsylvania: Frank J. Fabozzi Associates.
- 26) Friedman, M.(1957).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27) Hill, R.(1949). *Families under stress*.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 28) Johnson, D. P., & Widdows, R.(1985). Emergency fund levels of households. In K. P. Schnittgrund (Ed.), *Proceedings of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235-241.
- 29) Kim, H., & DeVaney, S. A.(2001). The determinants of outstanding balances among credit card revolver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2(1), 67-77.
- 30) Lee, L.-F., & Maddala, G. S.(1985). The common structure of tests for selectivity bias, serial correlation, heteroscedasticity and non-normality in the tobit model.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26(1), 1-20.
- 31) Lee, J., & Kwon, K.-N.(2002). Consumer's use of credit cards: Store credit card usage as an alternative payment and financing

- medium.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6(2), 239-262.
- 32) Lin, F. L., & DeVaney, S. A.(1996). Factors affecting families consumer debt burden. *Consumer Interests Annu*, 42, 141-149.
- 33) Lusardi, A. (1997). Precautionary saving and subjective earnings variance. *Economic Letters* 57, 319-326.
- 34) Lusardi, A. (2000). Precautionary saving and the accumulation of wealth. Retrieved November, 10, 2001, from http://www.harrisschool.uchicago.edu/pdf/제00_12.pdf
- 35) Marcotte, D. E. (1994). *Evidence of a decline in the stability of employment in the U.S.:1976-1988*. DeKalb, IL:Center for Governmental Studies,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 36) Nardone, T., Veum, J., & Yates, J. (1997). *Measuring job security*. *Monthly Labor Review* June, 26-33.
- 37) Newman, C., Henschion, M., & Matthews, A.(2001). A double-hurdle model of Irish household expenditure on prepared meals. Retrieved March 17, 2002, from <http://econserv2.bess.tcd.ie/TEP/tepno19CN21.PDF>
- 38) Skinner, J.(1989). Risky income, life-cycle consumption and precautionary saving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2, 237-255.
- 39) Stavins, J.(2000). Credit card borrowing, delinquency, and personal bankruptcy. *New England Economic Review* July/August, 15-30.
- 40) Sullivan, T. A., Warren, E., & Westbrook, J. L.(2000). *The fragile middle class: Americans in deb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41) Vaughan, E. J.(1997). *Risk manage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42) Walsh, D.(1999). Jobs cut, as economic insecurity of US workers rises. World socialist web site. Retrieved Feb. 18, 2002, from <http://www.wsws.org/articles/1999/feb1999/jobs-f20.shtml>
- 43) Welch, J. B.(2001). Finding gold in pink slips. *Financial Planning* April, 89-91.